



제48호 2015년 12월 21일 www.gccouncil.go.kr

발행인 문봉선 편집인 권영호 발행처 과천시의회사무과 | 과천시의회 전화 02-3677-2521 | FAX 02-2150-1550

개 회 사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구현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장 문봉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7월에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늘 열정적으로 과천시민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이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는 과천시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메르스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전반기 의회도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과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

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시정을 요구해 올바른 행정으로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7월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물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우리 시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15. 7. 7. ~ 7. 24. (18일간)

주요안건 -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과천시의회는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흥천)를 구성하여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을 심의하면서

- ▷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고의 건을 보고하였다.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금란)에서는

- ▷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의 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 총147건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다.

과천시·의·회·소·식

한눈에
보 기

1면 제208회 정례회

2면 제208회 정례회

·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8면 제209회 임시회

·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9면 제210회 임시회

· 송마체육장 건립 예산안 심의

12면 주요 의정활동사진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5. 7. 7. ~ 7. 14. (8일간)
- 위원장 : 이흥천 • 간사 : 고금란
- 위 원 : 안영, 윤미현, 제갈임주, 이수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기 간 : 2015. 7. 15. ~ 7. 23. (9일간)
- 위원장 : 고금란 • 간사 : 윤미현
- 위 원 : 이흥천, 안영, 제갈임주, 이수진

연번	안 건 명	의결결과
1	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원 안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 안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원 안
4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5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 안
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보고의 건	보 고
7	과천시 예절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 안
8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원 안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총147건)

기획감사실

10건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함.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조직의 구성,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예산의 배정 등 주민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니 검토바람.
- ② 시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화성시 참고)과 예산의 일정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하니 검토바람.
- ③ 주민참여예산 신청서식이 토목공사 분야에 한정되어있으니 다방면의 의견 개진을 위한 적절한 서식으로 보완바람.
- ④ 사업자들이 개입하여 주민들을 선동, 예산 신청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려하여 추진바람.

- ②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시장공약사항 및 시책추진사업 등에 대해 막연한 내용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등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 명확한 내용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 ③ 특정 언론사에 책자구입, 인쇄 등 계약이 집중 발주되는 사례가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 바람.

- ④ 정책융역연구위원회가 市 정책 영역의 자문 등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융역결과를 프리즘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바람.
- ⑤ 정보공개 시 융역에 대한 정보공개 제외사유(법률 제9조)를 확대해석하여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최소화하기 바람.

- ⑤ 공단, 체육회, 문화원 등 감사결과와 관련,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주는 단체에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조치가 안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이 안 되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 시정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 ⑥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금을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50%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침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행정자치부 등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여 추진바람.

- ⑦ 과천시 B개발 관련, 잘 제작되었고 의미도 좋다고 생각함. 추후 개발 취지에 따라 시정 마케팅 등에 잘 활용하기 바라며, 기관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 ⑧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현재 위

원 구성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심의 의결 절차에 있어서도 분과별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 ⑨ 지방보조금의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재 일정상 예산편성 전에 이를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내년 초 사업 공모전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제안함.

- ⑩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공동화현상, 지역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인구·재정변화에 대한 올바른 분석으로 교육·복지 등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함.(필요시 TF팀 구성 제안) 특히 노령화가

속화되고 있는데 30~40대 생산 연령층의 요구를 잘 살피 정책에 반영바람.

주민생활지원실

6건

- 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 보장 등 보다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바람.

- ②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해지지 않도록 2016년도 예산편성시 검토바람.

- ③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관련, 과천 거주비용 대비 현실적으로 지원 금액이 적으니 조례개정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④ 주택 재건축에 따른 이주시기와 보금자리주택 분양 입주 시기에 차이가 있어 시민불편이 예상됨. 특히 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주 정보제공 등 사업부서(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와 협의, 취약 계층에게 관련 정보를 세심하게 제공바람.

- ⑤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납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감면혜택 검토 등 융통성 있는 행정을 추진바람.

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컨설팅 및 양성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원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되어야 실질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과천시에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바람.

안전총괄담당관 4건

① 꿀벌마을 급수문제와 관련, 주변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으니 생활용수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② 최근 양재천 기름유출이나 관악산 산불로 피해가 상당했는데 철저한 사전대책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산불발생을 대비해 급수(방화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체계를 갖추기 바람.

－ 화재대책으로 고가사다리가 필요한데 이삿짐센터 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③ 여성예비군은 재난재해발생시 및 평상시에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취지에 따라 관내 비상사태(산불 등) 발생시 최소한 중대장, 소대장은 기본연락망에 구성되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④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연계, 복원 사업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등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바람.

도시사업단 7건

① 지하철 역사신설사업 추진에 따라 역사 주변지역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이용자 보행도로, 역사주변 주차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진바람.

②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 복지, 체육 분야 등 필요한 행정지원시설(유치원 등)을 위해 공공용지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염두에 두어 시

기를 놓치지 않게 추진바람.
(시설 위치도 고려)

③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보면 분양이 어려운 곳에 배치를 하였는데(10번~12번) 경기도시공사에 분양에 관해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람.

④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판교 분양을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 좀 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⑤ 지식정보타운 분양시기와 재건축에 따른 분양시기가 중복되니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최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바람.



⑥ 과천화해종합센터 사업에 대해 토론,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화해인, 전문가 등 위원회를 구성·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검토바람.(필요시 예산지원)

⑦ 보금자리 공동주택 시공 시 층간소음갈등 해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성능기준을 명시하게 하고 준공 전에 국가에서 인정한 측정기관의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바람.

도시정비과 6건

① 재건축사업이 일괄 추진됨에 따라 단지별 비슷한 시기에 과천시의 20%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이주하게 되어 주택수급 관련 이주대책이 시급함. 시민들에게 인근도시의 분양계획, 지식정보타운 분양시기, 금융정보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② 과천청사이전 대안으로 그간 청사 유희지 활용만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며 적극적인 대안책 없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함. 현재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인지 검토바람.

③ 재건축 추진 관련, 단지주변 학교에 대한 학습기자재 및 비품비용을 시장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조합, 교육청과 확실히 협의바람.

④ 재건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대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조합과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학생들의 건강이나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람. 또한, 분진대책으로 등하교시간에 운동장 주변 호스를 통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안하니 검토바람.

⑤ 7-1단지는 재건축 추진시 학교급식소와 가까워 분진문제로 민원 소지가 많으며, 시민건강에도 우려가 되니 대책을 강구바람.

⑥ 재건축 관련 공동주택 시공 시 층간소음갈등 해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에 성능기준을 명시하게 하고 준공 전에 국가에서 인정한 측정기관의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바람.

건설과 9건

① 세곡마을 도시 도로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이 도로부지 매각을 했으나 일부도로가 수용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하여 해결 바람.

② 문원2통 구 현풍식당 앞 다리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 안전 및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니 내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 조치바람.

③ 전화국 앞 지하보도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시민 투표, 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결정바람. 전시회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상주공간이 아니므로

환기문제도 없으며 접근성이 좋아 시민에게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니 검토바람.(고양시 화전역 지하보도 사례 참고)

④ 과천동 고가도로에 폐기된 볼라드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서울진입로 앞이고 대공원, 경마공원 주변지역으로 시민들 통행불편은 물론 미관상 좋지 않으니 조치바람.

⑤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오히려 주차문제(부림동 주택지역)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있으니 현장점검을 통해 조치바람.



⑥ 지식정보타운 남단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소음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니 방음 시설에 대해 LH공사와 잘 협의하고 설치 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바람.

⑦ 지식정보타운 사업추진 시 양재천에서 안양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중심상가 쪽에서 지식정보타운 연결부분 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⑧ 갈현동 우정병원 앞 도로가 저소음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입증되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다면 소음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⑨ 통신 케이블이 많이 설치되어 전자파 불안감 등 민원제기 하는 곳을 확인하여 통신사와 협의 후 조치바람.

건축과 5건

① 부림동 방과 후 돌봄교실 민원사항

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니 임시로 입주할 수 있는 유희공간이 있는지, 산업경제과와 협의하여 뒷문 통행이 가능한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이 곳 말고 수요가 더 많은 곳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연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 조정바람.(조정협의회 구성검토)

② 우정병원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용도 폐지하여 지식정보타운 등 새로운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거나 하는 등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③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설치(주암동 소재)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특혜 의혹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조치바람.

④ 경마장주변 개발제한구역에 토지용도가 나대지, 임야, 전·답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점검하여 조치 바람.

⑤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사업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도시 전체 경관에 맞게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으로 과천시만의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바람.

교 통 과 10건

① 강남 연결 지하철 신설사업은 처음 기대와 달리 과천의 일부 구간이 수용이 안되어 시민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임.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바람.

② 주암동 지역 자동차경정비업소가 30여개 되나 정작에 1급 정비업소가 없어 시민들이 안양권으로 가는 불편이 있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급 정비업소를 유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람.

③ 과천역과 청사역은 지하공간이 개찰구로 막혀있는데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면 시민통행도 편리하고 휴게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검토바람.

④ 부림동 등 단독 주택지역이나 중앙동 학원 상가지역은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용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관대 설치를 적극 검토바람.

⑤ 11-7 버스노선 운행이 중단되어 마을버스 운영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선바위역을 포함하여 양재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반영바람.



⑥ 과천농협 앞, 환경사업소 앞 서울 18번 마을버스 기사들의 오물투기, 노상방뇨 등으로 민원제기가 많은데 운수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강력하게 요구바람.

⑦ 문원 2단지 단독지역 내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 간의 다툼이 빈번하니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시고 일방통행로 지정이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주차문제를 해결바람.

⑧ 문원굴다리(6단지에서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 지나 로타리 지역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로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니 좌회전 금지 표시판을 검토, 설치바람.

⑨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천에는 혜택이 없음. 향후 재건축으로 6단지, 7단지 버스환승에 대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실태조사를 통해 광역버스정류장 설치 검토바람.

⑩ 경마장 근처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제를 사설주차장처럼 변칙운영하

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니 수시로 점검바람.

민원봉사와 4건

①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사업 운영 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현황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보 제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바람.

② 시청모니터 운영 사업은 단순 시민불편사항 제보가 빈번하여 자칫하면 보상을 받기 위한 정책으로 흐를 수 있으니 교육을 통해 시청에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기능을 강화바람.

③ 민원실 여권발급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권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선 5기 슬로건이 담긴 케이스가 제공되는데 여권케이스는 해외에서도 과천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조치바람.

④ 민원실 업무가 단순히 서류발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좀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 타 시군 사례 참고.

사회복지과 14건

① 시청 정문 앞 카페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향후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 문제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이나 조건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추진바람.

②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보조금 등 장애인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많아 개별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우려됨. 수혜대상인원 심층면접 등을 통해 개인들의 의견과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바람.

③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잘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문제

를 적극 해결바라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제안하니 검토바람.

④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집 등 위탁관리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 수입·지출내역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바람.

⑤ 엄마랑 아이랑, 아이러브 맘 카페 등 운영대비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람.

⑥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양성 및 일자리 연결에 적극적으로 지원바람.

⑦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종합실태조사(교통약자 수와 이동실태)를 실시하여 각종시설에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지에 대해 확인하여 우선순위부터 설치바람.

⑧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 현황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제도 등 각 부서의 취약계층 대상사업을 일괄 정리하여 사회 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람.

⑨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장수수당에 대한 복지에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 지급연령 조정 등 장기적인 대안을 검토바람.

⑩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일자리 수요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사업을 배치바람.

⑪ 장애아동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장애인에게도 체육교실이 지원되어 건강의지를 도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⑫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로 인해 부모들에게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

⑬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보수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열악하니 원장뿐 아니라 교사들과의 소통의 자리

를 만들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 바람.

⑭ 기존 놀이터와 차별화된 주민들과 아이들이 만드는 놀이터, 아이들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생태·창의적인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과천에 시범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교육청소년과 9건

① 학교에서 여름철 선풍기 청소, 교실 청소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이 많음.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에 청소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②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장이 참석하여 심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조례에 학부모대표가 빠져있으니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개정을 검토바람.

③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조례상 시민·환경단체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나 현재 위촉되어 있지 않으니 추후 위촉바람.

④ 세월호 사건이나 단순한 예산상향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줄인 경우가 있으니 좀 더 세심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바람. (현장체험활동비, 교사동아리사업 등)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관내 입주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 협의하여 추진바람.

⑥ 지식정보타운 내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부지확보(고등학교 등)에 대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바람.

⑦ 주택 재건축 추진관련 조합과 교육청 간 협약을 보면, 초등학교 3개 학교가 증축하기로 되어있고, 중학교는 증축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현재 학생 수 감소에 대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건축 이후 학생 수 증감에 대한 예측을 통해 학교 수급 및 배정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바람.

⑧ 방과 후 보육문제 대책으로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 문화의 집처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바람. (은평구 청소년문화의집 애프터센터 참고)

⑨ 환경부 주관 어린이 건강보호종합대책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관내 학교에 대해 학교 환경 안전진단을 받기 바라며, 문제 발생 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문화체육과 11건

① 문화원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반영바람.

② 문화행사과 축제성 경비 지출이 예산대비 1.5%수준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하며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임. 행사성 경비 중 각종 체육대회 참여 등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생활체육지원 사업에 대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 파악 필요)

③ 최근 관내에서 대학배틀대회가 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금년 11월경 용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추후 과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람.

④ 승마장, 캠핑장 관련한 용역 결과가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보면 계획수립, 조사가 완료된 경우 요청이 없더라도 공개하게 되어있고 비공개 사유(법률 제9조)에도 내부검토과정 종료되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공개치 않고 있음. 시민들의 정확한 알권리를 위해 공개바람.

⑤ 관악사지 2차 발굴조사가 16년 전 1차 발굴조사 이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되었는데 사업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우려됨. 발굴사업 이후

복원사업까지 심사숙고하여 추진바람.

⑥ 추사박물관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짐.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교통 대책이 필요하니 방안을 강구바람.

⑦ 추사박물관은 학문적 깊이가 있는 곳으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학자나 연구자들에게 학문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⑧ 추사박물관 내 기념품 샵에 고가 기념품이 많고 단체 관람객이나 외국인 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념품이 부족하니 주민이 제작한 기념품 활용 등 좀 더 구매가 쉬운 기념품으로 검토바람. (평생학습 축제 전시회 참고)

⑨ 추사박물관 및 시립예술단은 경영 및 예산구조에 있어 반복적인 개선 건의가 있음에도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니 검토바람.

⑩ 체육회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적발 건수가 많고 내용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함.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게 지도 점검하여 관리바라며, 차기 예산편성시에도 반영하기 바람.

⑪ 학생 체육 공간 및 주민 체육시설 등을 위해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장과 협의바라며, 재건축 이후 체육시설 설치 시 주차장시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바람.

환경위생과 7건

① 3단지,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재검토바람.

②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상가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으니 현장 확인하여 조치바람.

③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니 음식물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설치 등 재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바람.

④ 문화관광 홈페이지 상가안내에 관내 음식점의 전화번호, 주소정도만 제공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 휴무일, 메뉴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SK서울물류센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인해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으니 확인바라며, 토양오염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치바람.

⑥ 야생화 자연학습장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유지관리비나 인력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면서 최근 이에 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으로 보이니 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⑦ 스마일 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내 곳곳에 설치한다면 재활용에 대한 취지도 살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의식 제고에도 좋으니 설치방안 검토바람.



산업경제과 11건

① 주말 문화장터 운영 관련해서 시장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천장터만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지원바람.

② 이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내 생계유지형 상가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시 협의바람.

③ 주택 재건축 추진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상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

니 구체적인 상가대책을 마련하여 대응바람.

④ 테니스장 운영 위탁사업에 대해 위탁기관인 테니스협회에서 자체감사를 하였는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니 직접 현장에 나가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는 수익성,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니 관리부서 변경을 검토바람.

⑥ 지식정보타운, 재건축 등 개발사업 이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한 방안 등에 대해 파악하여 2015년도 에너지 기본계획 작성 시 반영바람.

⑦ 과천교회 앞 나대지에 주차장 사업이 진행 중이나 주민간의 갈등이 있으니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명확하게 알려 소통행정을 추진바람.



⑧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후 서식지로 반환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확인바람.

⑨ 코오롱길 수목이 우거지면서 도로상의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과 보행자의 통행 불편 민원사항이 있으니 현장 확인하여 가로수 전지작업을 추진바람.

⑩ 지식정보타운 조성 관련 갈현동 영농조합에 대한 보상 문제, 향후 준치문제 등 발생될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세심하게 관리감독 바람.

⑪ 산불이나 산림훼손 감시에 무인항

공기인 드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영상제공과 수치지도 제작이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도입방안을 검토바람.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 전용 CCTV 설치 및 산불진화기를 대비해 물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임도 설치를 제안하니 검토바람.

정보통신과

2건

① 클라우드 컴퓨터가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 도입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 교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고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먼저 필요한 분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또한 사용가능한 기존컴퓨터 재활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바람.

② 방법용 CCTV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 추가 기능을 더해 활용한 사례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니 앞으로 각종 범죄예방과 해결에도 적극 활용바람.

세 무 과

2건

① 2018년부터 경마장에 전자카드 도입이 되면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재정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세입예측에 따른 조정교부금 변동액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시 차원의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바람.

② 체납액 결손 처리 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고질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가 필요하니 기존 운영되고 있는 기동팀의 역할을 강화바람.

회 계 과

3건

①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관련 준공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청 내 화장실에 절수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니 검토바람.

③ 관내 청소업체 등의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바람.

총 무 과

10건

① 부림동 방과 후 교실 민원사항은 전국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으니 관련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임시 입주 공간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바람.

② 공무원 인사제도는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결국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으니 공평한 인사정책을 위해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을 마련바람.

－ 직원 근무평정 시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감안하여 평가방안검토바람.

③ 직장보육시설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학부모대표들에게 기본설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학부모들과 협의 시 시립어린이집 기준을 초과한 내용으로 설계내용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추진바람.

④ 시청 대강당 대관과 관련 정치 및 정당성 행사와 시정에 반하는 행사는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의 권리와 공정성 보장의 측면에서 재고바람.

⑤ 부서별로 소관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 등 관련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정보공개자료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바람.

－ 중복 위촉되는 위원이 많으니 공개구성 등 방안을 강구바람.
－ 위원회 회의록은 30일 내에 시 홈페이지에 올리기 바람.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는 최소화하고 비공개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기 바람.

⑥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확대 해석하여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바람.

⑦ 과천시는 자매도시나 타 도시에 비해 과천만의 특산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 장기검토가 필요하며,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특산품 소개코너 신설을 제안하니 검토바람.

⑧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후 작성한 보고서를 새울 행정시스템에 올리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바람.

⑨ 주민자치공모사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선정되었으나 사업내용 대비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어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편성바람.

⑩ 과천시 조직 활성화 교육은 직원, 부서 간의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효과를 가져온 잘 기획된 행사임. 특히 조직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활성화가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영바람.

보 건 소

4건

① 에이즈 등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환자개인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철저히 실시바람.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추진시 청소년 핸드폰 중독, 주부 우울증, 치매 가족문제 등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도록 사업내용도 융통성 있게 계획하여 운영바람.

③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학교에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분야가 분업이 되어 일반학생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안내가 된다면 시민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개선방안 검토바람.

④ 약국, 의료기기 관련 업소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등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바람.

정보과학도서관 2건

① 연간 2천여 권에 달하는 책을 폐기 매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단순히 폐지로 소각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바람.

② 새마을문고 운영시간이 일주일 6시간에서 9시간 이내로 매우 짧아 도서관 활용가치가 낮다고 보임. 도서관이 많은 중심지역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외곽지역(삼포마을 등)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력지원 및 시간 연장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상수도사업소 2건

① 상수도 미 공급지역 중에 음식점 2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바람.

② 노후화된 수도관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상수도 누수율을 높이는 원인이나 노후 수도관 교체계획을 세워 추진바라며,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 주민에게도 적

극 홍보바람.

－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관 교체는 장기적으로 비용 발생이 크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바람.

환경사업소 2건

①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인데 승인이 안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니 반드시 당초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하수처리장 지하화에 천역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독립회계로 시민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임.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장기계획도 수립바람.

6개동 주민센터 3건

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보다 문화교육센터 강좌 운영되는 정도에 그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는 비판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 및 직능별, 연령별 구성원의 다양화 등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모색바람.(공통)



② 지역발전토론회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모임 수당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동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공통)

－ 주민자치위원 분과모임 비용은 필요 시 별도 예산편성 사용바람.

③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차별화된 내용의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음. 이야기거리가 많은 문원동 단독주택에 벽화사업을 제안하니 검토 바람.(문원동)

시설관리공단 4건

① 체육사업 프로그램 폐강기준이 관내 다른 기관의 강좌에 비해 엄격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공단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하는 기관으로 강좌 폐강기준을 감가상각비 등 수익성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재검토 바람.

② 프로그램 계획시 과천시 인구변동상황, 연령대 등 과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분석하여 구상하기 바라며, 노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실버 체능단을 유아체능단처럼 공단 특화사업으로 제안하니 검토바람.

③ 문원체육공원 내 분수대 가동시 안전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현재 가동중지 상태임. 주민이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바람.

④ 관문·문원체육공원 유료 주차장 설치에 대해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유료화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히 설명바라며, 조례개정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바람.

감사 종합의견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결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천은 현재 지식정보타운, 재건축 등 개발 사업에 따라 市의 전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 분양 및 이주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 공동화 현상, 지역경제침체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 소관 사항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도 분양 안내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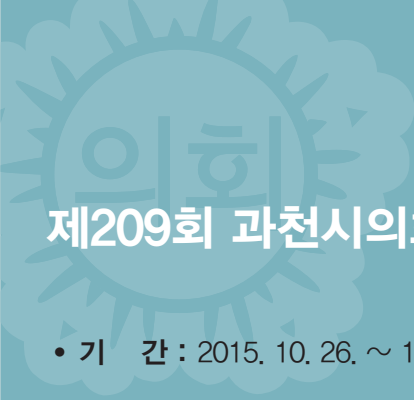
또한,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을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있도록 미비한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정책 도입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 및 축제 사업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여 주시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 등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15. 10. 26. ~ 10. 29. (4일간)



• 의결사항 - 원안가결 31, 수정가결 7, 부결 1, 보류 1

연번	안 건 명	의결결과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2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3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4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 결
5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6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7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8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 안
9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0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1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2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3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원 안
14	과천시 장애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5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6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 안
17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원 안
18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19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연번	안 건 명	의결결과
20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 안
21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 정
22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 안
23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 안
24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25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26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27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28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 안
29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30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31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32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33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34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원 안
35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원 안
36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37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 류
38	과천시 주택 조례안	수 정
39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40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원 안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계수조정내역

[세 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실과명)	부 기 명	당초	2회추경안	조정	증 감
계		-	3,750,000	-	△3,750,000
세 무 과		-	3,750,000	-	△3,750,000
시·군·조정 교 부 금	승마체험장 건립	-	1,000,000	-	△1,000,000
	캠핑장 조성	-	350,000	-	△350,000
국고보조금	승마체험장 건립 사업	-	2,400,000	-	△2,400,000

[세 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실과명)	부 기 명	당초	2회추경안	조정	증 감
계		-	5,170,000	-	△5,170,000
문화체육과		-	5,170,000	-	△5,17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야음악회 (재단법인 과천축제)	-	20,000	-	△20,000
시 설 비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	-	350,000	-	△350,000
	○ 특별조정교부금	-	350,000	-	△350,000
	친환경 캠핑장 실시설계비	-	400,000	-	△400,000
	○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350,000	-	△350,000
	○ 환경 영향 평가	-	35,000	-	△35,000
	○ 측량비	-	15,000	-	△15,000
시 설 비	승마체험장 건립사업	-	4,400,000	-	△4,400,000
	○ 국비	-	2,400,000	-	△2,400,000
	○ 특별조정교부금	-	1,000,000	-	△1,000,000
	○ 시비	-	1,000,000	-	△1,000,000

제21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15. 11. 26. (1일간)
- 부의안건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결사항 - 부결

[세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실과명)	부 기 명	당초	3회추경안	조정	증 감
계		-	3,400,000	-	△3,400,000
세 무 과		-	3,400,000	-	△3,400,000
시·군·조정 교 부 금	○ 특별조정교부금	-	1,000,000	-	△1,000,000
	- 승마체험장 건립	-	1,000,000	-	△1,000,000
국고보조금	○ 승마체험장 건립	-	2,400,000	-	△2,400,000

[세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실과명)	부 기 명	당초	3회추경안	조정	증 감
계		1,470,000	4,870,000	1,470,000	△3,400,000
기획감사실	○ 내부유보금	1,420,000	210,000	1,420,000	1,210,000
건 설 과	○ 근린공원(갈현지구) 진입로개설 공사	-	210,000	-	△210,000
문화체육과		50,000	4,450,000	50,000	△4,400,000
	○ 승마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0	550,000	50,000	△500,000
	○ 전략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42,000	-	△42,000
	○ 승마체험장 건립	-	3,858,000	-	△3,858,000

반대 토론

의원 안 영

안녕하십니까? 안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64억을 내팽개친다고 하니 그 국도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비 24억, 도비 40억이 확정됐다 말씀하셔서 그 공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공문에는 경기도의 담당자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이미 내려온 10억 외에 나머지 30억에 대해 확정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있는 문서작성자께 전화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0억은 이미 내려간 것이고 나머지 30억은 신청은 들어왔지만 내려보내겠다고 확정해 준 적이 없다, 내려가야 내려가는 것이라라는 것이 공식답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자면 확정된 금액은 국도비 64억원이 아니라 34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10억원에 해당합니다.

일단 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으로 받은 도비가 10억원인데 2012년에는 도비를 그 5배인 52억을 받았고 2013년에는 23억, 2014년에는 32억을 받았습니다. 매년 적게는 20억원대에서 50억원 정도까지 받아왔습니다. 이 도비로는 매년 공원이나 도로의 보수공사비 같은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도비를 올리는 승마장, 캠핑장에 다 쏟아붓느라 다른 부분의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사박물관과 경기소리전수관 지을 때도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사박물관이나 경기소리전수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추사박물관은 전체 건물 건립비용 120억원 중 국도비가 84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지원받았습니다.

자,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 80억원을 앞에 두고 추사박물관을 지을지 말지 여기서 결정하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년 10억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지만 재정부담 때문에 박물관에 더 투자해서 발전시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추사박물관, 그리고 국도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도비를 당장 얼마를 받아왔느냐 보다 이 시설이 과천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추경 이후 승마장과 캠핑장 두 사업 중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올리겠다고 하셨을 때 차라리 캠핑장을 올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승마장, 캠핑장 두 사업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 든 면에서 승마장이 캠핑장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승마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캠핑장을 버리고

승마장만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국도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사업에 국도비를 애써서 받아와서 이제는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합니까?

모든 사업에는 효용과 더불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승마장 사업을 할 경우 그 효용과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효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승마장 사업의 효용을 공익성, 수익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130억 투자해서 말 10마리 운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용역보고서에는 120억 투자로 되어 있지만 그새 10억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어쨌든 130억 투자해서 말 10마리로 운영하다가 수요가 증가하면 몇 년 뒤에는 20마리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20마리를 운영할 경우에는 손익 변동폭이 너무 커서 일단은 10마리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말 10마리를 가지고 7만 과천 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승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천시 청소년들이 누구나 말을 탈 줄 알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재활교육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부 관광객까지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말 10마리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는 130억 투자해서 30분에 4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 예상손익이 플러스마이너스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민, 청소년에게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30분에 4만원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장애인재활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그 적자폭은 매년 몇 억, 몇 십억이 될지 알 수 없어 그 재정부담은 모든 시민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억 투자해서 고용효과 단 3명입니다. 너무 적습니까? 고용을 좀 늘릴까요? 그러면 적자폭은 늘어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이 사업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진입로에 상업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10마리, 20마리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해서 와서 승마체험을 하고 다시 나가지 않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악산 등반객들에 비해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야생화자연학습장은 없어집니다. 캠핑장 부지에 새로 더 잘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캠핑장 사업이 취소된 상태이므로 야생화자

연학습장은 없어질 뿐 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든 이 사업은 공익성도 수익성도 매우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써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만을 위해 임시회를 열어 승마장을 지을지 말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당면한 현안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 일단 재건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 단지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5개 단지가 동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되곤 하더군요. 그런데 5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전체 세대수의 20%인 5천여 채의 집이 일시적으로 없어집니다. 이 5천여 세대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이주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미 전세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집이 아예 없습니다. 상가는 정부청사가 빠져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적자에 시달릴 것입니다. 보금자리 분양과 재건축 분양 시기는 어떻게 조절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재건축과 보금자리가 입주할 때 공급과잉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천 시민, 상인 모두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 설명회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외에도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송전탑, 3단지 방음벽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현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승마장을 짓느냐 문제를 가지고 임시회를 별도로 열고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했더라도 해결하기 쉬웠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낭비를 들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복지대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니 보육수당은 매년 불

안하고 장수수당은 올해 안에 없애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런데 130억원을 들여 말 10두로 운영하는 승마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과천시 승마동호인은 25명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는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 사업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셔서 적어도 6월 초에는 일곱 의원 중 과반수인 4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미 4월부터 국도비 64억원을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홍보해 오셨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4명의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오고 있었지만 지난달 추경이 열릴 때까지 반대 시민들에 대한 설득은 고사하고 의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 한번 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 열린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나자마자 11월 2일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야합으로 과천시 미래발전을 저해하고 과천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의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과천시의 행정신뢰도가 추락하고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없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 시정의 최고책임자는 바로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몸을 낮춰야 하는 것은 시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처음부터 반대하는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을 향해 일부 시민의 반대일 뿐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정치적인 음모, 야합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옛 고전에 좋은 정치란 백성의 마음

을 얻는 것이고 나쁜 정치는 형벌로 다스리는 것인데 나쁜 정치 중에서도 제일 나쁜 정치, 하지하의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천시의회의 책임도 큼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받아온 국비 34억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을 조기봉합하고 진정 과천시민을 위한 그리고 진정 과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결정이 어떤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

의원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

저는 승마체험장 건립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은 전국 제일의 도시로써의 명성을 쌓아왔지만 최근 여러분도 체감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상가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업률과 고용률 조사에서 과천시가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최저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잃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공동화 탈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 및 다양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잠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 제시)

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상가공실률이 2012년 5.7%에서 2013년 6.1%, 2014년 7.9%로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업을 및 고용률을 보시면 실업률은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155개 시·군에 따라 실업률 1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154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의 변천사 사진을 잠

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2005년 사진과 2014년 사진입니다. 여러분, 변한 것이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천은 30년이 지나도 재건축 몇 개 단지 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복지, 교육, 환경에만 집중하시는 걸까요? 그건 한마디로 과천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천을 사랑하시는 어르신은 오히려 저희가 시대를 역행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 과천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도 마이너스성장을 하면 대안을 세우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신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과천시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 환경만 외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까? 갑자기 본 의원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생각납니다. 행정도 기업마인드에 접목하는 시대이며 문화, 예술, 체육도 홍보마케팅을 하며 자생력을 키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이제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여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꾸며 안주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천에 입성한 분들의 목표는 대부분 조건부로 들어온 게 현실입니다. 첫째 교육, 둘째 재건축, 셋째 조용한 베드타운. 이것만 충족되면 과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인근 주변 의왕, 안양, 군포, 강남, 서초 등은 많은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과천시만 정체 내지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천을 잘 아시는 외부사람들은 한결같이 과천은 그동안 변한 게 없으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이대로 침체된 도시로 활기 없는 도시로

계속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신계용 시장님의 정책이 과천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첫 출발점으로 과천시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저희 7대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자생력을 높이는 첫 출발점이라고 판단하여 적극 지지합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 심의위원장을 맡아서 승마체험장 예산삭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리가 공정해야 하고 의원 여러분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선진 민주주의를 따르고 역행하고 싶지 않아 승마장에 대한 예산삭감을 결정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눈물의 호소를 뒤로한 채 저 또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환경훼손, 예산낭비 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승마체험장 건립 부지를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그곳은 전, 답,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활용도가 낮은 지역으로 우려할 만큼 자연훼손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저도 이 사업이 싫습니다. 못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발표한 것처럼 승마체험장 총사업비 99억원 중 64억원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여 과천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국도비 34억원 편성을 통해 이 믿음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공익성,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마체험장 운영을 통해 흑자도 적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탁상공론식 예산서와 데이터로 근본적으로 과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간 지난 행정의 문제마식, 몰아주기식으로 일관한 일방적 행정 정책 등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감사 시 검토하며 절망해 온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다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해 얻는 행복감, 건강함, 정서적 안정, 성취감 등을 단순히 물리적 가치만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승마체험장은 가족과 함께 또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우들이 재활교육을 받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장애우들의 가족들도 함께 웃음지으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수익성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수치화시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도 함께 가져갑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과천에 사시는 한 중년의 어머니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눈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로 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승마를 포함한 스포츠라는 재활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림한 아이로 교육시킬 수 있었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시켜 군대까지 보내는 기적과 같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만 보여지는 수치상의 이유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애우 어머니의 눈물도 생각해 보시고 승마체험장을 단순히 오락성 경륜과 연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은 수익성에만 데이터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마체험장은 우리 도시의 맞춤형 사업으로 교육, 문화, 경제, 복지, 장애재활교육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과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

과천시를 한 단계 도약시킵시다. 차별화된 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는 양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날 수 있습니다. 양 날개가 서로 협력하고 힘차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른쪽 날개가 행정이라면 왼쪽 날개는 의회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시민 여러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

의원 고금란

안녕하십니까? 고금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저는 찬성 지지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의 변화를 전 생애를 통해 경험한 시민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은 수도 서울을 위한 계획도시로 결정되며 시로 격상됐습니다. 도로, 수도, 청사, 공원, 우리가 누리는 것 어느 하나 과천시 의지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친환경도시 과천은 산이 4면을 둘러싸고 있는 분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성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규제라는 제도 속에서 얻은 명성입니다. 과천시는 이제 스스로 자력성장을 할 동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슈로 자리한 과천훼미리파크 내의 승마체험장은 그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공공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적 경영과 시민 간의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공성은 경제성과 동반 상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공성을 경제성과 함께 저울질한다면 시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의 수동적 경영이 불가피한 경영방식과 단순비교해서 수치를 경제성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산성토양에 어디서나 잘 자라는

과천시의 밤나무, 더구나 인위적으로 군락지가 형성된 그곳을 자연파괴, 환경파괴로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의 반대명분으로 귀족스포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에 과연 귀족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승마캠핑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여론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탄하십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승마캠핑장이 외지인의 투기를 목적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과천시는 시민복지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8천명이 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1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있습니다. 경단년의 국민연금이 특위 처리에서 무산됐습니다. 주부 661만명의 연금을 차버린 국회,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는 170억 중 국도비가 구두, 서면으로 1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110억을 차버린 의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과천의 진지한 고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승마장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그리고 여타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과천시의회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gccouncil.go.kr

주요 의정활동 사진



- ① 광복70년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8.12.)
- ② 제16회 연합회장기 검 제9회 과천마사랑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 (9.12.)
- ③ 6.25전쟁 65주년 행사 (9.15.)
- ④ 제20회 과천시화훼전시회 개막식 (9.16.)
- ⑤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10.6.)
- ⑥ 2015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10.8.)
- ⑦ 제11회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10.10.)
- ⑧ 제2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10.10.)
- ⑨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연수 (10.13.)
- ⑩ 제30회 과천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10.18.)
- ⑪ 제1회 과천시의회 모의의회 (11.16.)

